

장편소설에 나타난 원호 형상화의 수준과 과제

이광수, 남정희, 한승원, 김선우, 신종석의 원호 소재 작품에 대하여

Analyzing Wonhyo Presented in Full-length Novels and Further Assignment - Focusing on Literary Works that Selected Wonhyo as a Major Figure by Lee Gwang-su, Nam Jeong-hee, Kim Seon-woo, Shin Jong-seok -

저자 (Authors)	홍기돈 Hong, Gi-Don
출처 (Source)	우리문학연구 56 , 2017.10, 619-660(42 pages)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56 , 2017.10, 619-660(42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문학회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59267
APA Style	홍기돈 (2017). 장편소설에 나타난 원호 형상화의 수준과 과제. 우리문학연구, 56, 619-66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서관 183.106.106.*** 2021/07/11 15: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장편소설에 나타난 원효 형상화의 수준과 과제

—이광수, 남정희, 한승원, 김선우, 신종석의 원효 소재 작품에 대하여—

홍기돈*

< 목 차 >

- | | |
|---|------------------------------|
| I. 장편소설 원효가 노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 III. 한 명의 원효, 다섯 개의 시물라르크 원효 |
| II. 원효의 생애 : 출가, 오도송(悟道頌) 그리고 소성거사로서의 삶 | IV. 원효 형상화에 요구되는 몇 가지 기본과제 |

<국문초록>

원효의 생애에 관해서는 단편적인 기록 몇 편만이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기록조차도 설화 수준에서 과장·왜곡되어 유통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먼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사상과의 대조를 통하여 원효의 생애를 큰 틀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껏 발표된 원효 소재 장편소설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련 정보가 빈약한 까닭에 각 작가의 이념에 따라 원효는 천차만별 다른 면모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광수의 원효가 성전(聖戰)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임하기를 독려하고 있다면, 남정희의 원효는 여성 판타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승원의 원효가 평민불교에 뿌리 내린 반전주의자의 면모로 부각된 반면, 신종석의 원효는 삼한일통(三韓一統) 전쟁에 적극 나서는 민족주의자이고, 김선우의 원효는 요석과의 사랑 안에서 불도를 이루어가는 개별자의 면모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착상에 속수무책 원효가 휘둘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대 배경에 입각한 사료 및 설화의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원효가 엄격한 수행자에서 자유인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불일불이(不一不二)·화쟁(和諍) 등 원효의 사상이 명실상부 결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불일불이(不一不二), 멸사봉공(滅私奉公), 여성 판타지, 평민불교, 반전주의자, 개별자, 민족주의자, 화쟁(和諍)

* 가톨릭대학교

I. 장편소설 원효가 노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원효(617~686)를 소재로 삼은 장편소설은 현재 다섯 편 발표되었다. ① 이광수, 『원효대사』(『매일신보』, 1942.3.1~10.31) 전2권 분량 ② 남정희, 『소설 원효』(도서출판 장원, 1992) 전3권 ③ 한승원, 『소설 원효』(비채, 2006) 전3권 ④ 김선우, 『발원 : 요석 그리고 원효』(민음사, 2015) 전2권 ⑤ 신종석, 『원효』(청어, 2016) 전1권. 원효가 아무리 대단한 사상가이자 활동가라 할 지라도 그에 대한 장편소설이 이렇게 두툼한 분량으로 여러 편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소설이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는 서사양식”을 가리킨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용어비평사전』, 국학자료원, 2006)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한다고는 하나, 재구성해 낼 대상에 관한 정보가 빈약하다면 인물 및 사건의 형상화는 어찌할 수 없이 작위 수준에 머무르고 말 터이다. 원효에 관한 기록이 과연 두세 권 분량의 장편소설을 감당할 만큼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는가.

현재 원효의 생애를 기록한 행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대기가 새겨진 「고선사서당화상비(高仙寺誓幢和尚碑)」 또한 단편만 남아있는 형편이다. 그 외 원효의 생애가 부분적으로 드러난 자료로는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 「원효불기(元曉不羈)」, 찬녕(贊寧, 919~1001)의 『송고승전(宋高僧傳)』 권4 「당신라국황룡사원효전(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원효의 생애 전체를 파악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장편소설로 형상화된 원효는 원효의 실체에 다가서 있다기보다는, 각 작가 그러니까 이광수·남정희·한승원·김선우·신종석의 원효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 작가들은 일찌감치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원효를 대상으로 장편소설을 써 내려

간 것일까. 이는 결국 그러한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매력을 원효에게서 느꼈기 때문일 터인데, 이 논문은 각 작가가 부각시키고 있는 원효의 면모를 비교하는 한편 그 성취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원효의 면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요청된다. 각 작가가 형상화해낸 원효(a)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원효(A)의 실체가 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원효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가 되는 자료는 앞서 제시한 비문 및 문서이다. 그리고 작가의 성취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가 재현해낸 원효(a)가 원효(A)의 사상을 과연 얼마나 담지하고 있는가가 될 터이다. 즉 원효의 사상이 작품의 성취를 측정하는 열쇠가 되리라는 것인데, 이는 원효(A)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거점으로 작용하는 바도 있다. 따라서 2절에서 원효의 사상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고자 하며, 3장에서는 이에 입각하여 각 작품의 면면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원효를 형상화하는 데 요청되는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원효의 생애

: 출가, 오도송(悟道頌) 그리고 소성거사로서의 삶

「고선사서당화상비」에 따르면, 원효는 수공(垂拱) 2년 3월 3일 70세에 입적하였다. 그러니 원효가 617년 출생하여 686년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 진평왕(578년 즉위), 선덕여왕(634년 즉위), 진덕여왕(647년 즉위), 태종무열왕(654년 즉위), 문무왕(661년 즉위), 신문왕(681년 즉위) 대에 해당한다. 출생지는 현재의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이며, 어릴 적 이름이

서당(誓幢)이었다는 사실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¹⁾

원효의 출가 시기에 대해서는 『송고승전』에 “관채의 나이(卽禿之年)”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모치쓰키 신코(望月信亨)가 『대승신기론 연구(大乘起信論之研究)』(동경: 金尾文淵堂, 1922)에서 내세웠던 ‘29세 출가’이다. 이는 한동안 통용되었으나, 현재 사료 해석에서 오류를 범한 데 불과하다는 비판받고 있다. 기실 이는 ‘관채’ 해석과 관계가 없으며, 의상이 29세에 황룡사에 출가하였다는 사료와 원효의 경우를 혼동한 데 불과하며, 의상이 29세에 출가하였다는 분석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모로하시 데쓰지(諸橋徹次)가 주장하는 ‘15세 출가’다. 그는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 근거하여 ‘관’ 자의 용례를 ‘총각 관’으로 파악하였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컨대 황영선의 경우 “관채는 어린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묶어 올려 만든 쌍상투를 말하는 것으로 관채지년은 15~16세의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²⁾ 세 번째, 10여 세에 구도의 길에 나섰다는 ‘동진출가(童眞出家)’다. 고영섭의 주장에 따르면 “서당(誓幢)은 관채지년(卽禿之年)의 나이인 열 살 이전, 정확히는 약 8~9세에 이미 출가하여 사문(沙門: 승려)이 된다.”³⁾ 『삼국유사』의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조목을 보면, 8세가 된 혜공왕의 나이에 대해 ‘유중(幼冲)’이라 하였으며, 그러한 까닭에 태후가 섭정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영섭은 이를 근거로 ‘관채의 나이’, 즉 관례(冠禮)에 들어서기 전 쌍가마 올린 어린이

1) 일연, 김원중 옮김, 「원효는 얼마이지 않는다」, 『삼국유사』, 민음사, 2007, 465~466면.

2) 황영선, 『원효의 생애와 사상』, 국학자료원, 1996, 26면. 남동신은 현재 학계에서는 대체로 15세 무렵의 출가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정리하고 있다.(남동신, 『영원한 새벽 원효』, 도서출판 새누리, 1999, 67면.)

3)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원효, 한국 사상의 새벽』, 한길사, 2009, 31면. 은정희 또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의 해제에서 동진출가에 따르고 있다.(은정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2004, 8면.)

의 연령을 이빨 가는 나이[齠齒之齡, 7~8세]와 대나무말 타고 노는 나이[竹馬之齡, 10세 이상] 사이로 추출한 것이다.⁴⁾

원효의 출가 시기가 중요한 까닭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발심(發心) 동기를 추정해 내는 데 용이해진다. “출가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적 가치는 발심이다. 출가의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그 인물의 구도열과 교화행을 불교적 가치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⁵⁾ 그러나 출가한 인물에게 발심 동기는 이후 펼쳐지게 될 행적과 사상을 이끄는 일종의 나침반이라 할 만하다. 그렇지만 원효의 경우 출가 시기조차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는 실정이나 발심 동기가 제대로 알려져 있을 리 없다. 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원효를 대상으로 창작된 서사에서 이는 중요한 대목일 수밖에 없으며, 작가의 기본적인 역량은 여기서 일차적으로 드러나게 될 터이다. 둘째, 출가 시기는 원효의 상을 정하는 데 초석이 된다. 동진출가의 경우 구도(求道) 측면이 부각될 터이나, 15세·29세 출가의 경우에는 전력(前歷)을 부여하게 되어 원효의 면모가 보다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사료 속의 원효(A)가 각 작가의 원효(a)로 재구성되는 초석으로 기능하므로 이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출가를 둘러싼 부분한 해석과는 달리, 원효가 깨달음을 얻는 장면은 분명하다. 650년 원효와 의상은 고구려를 거쳐 당에 유학하려 하였으나, 고구려에서 간첩으로 몰리는 바람에 1차 유학에 실패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유학을 시도했던 것은 661년이었고, 이때 원효의 나이 45세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송고승전』 「당신라국의상전」에 나타나 있다. 당주계(唐州界 : 현 화성시 서신면, 송산면, 마도현 일대)에서 배를 타고 당으로 건너고자 길을 재촉하던 원효·의상은 비바람이 불고 날이 어두워지자 토

4) 위의 책 257~258면의 미주8 참조.

5) 최원섭, 「불교 주제 구현을 위한 원효 캐릭터 비판-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2014.7, 351면.

감(土龕 : 비바람을 가리기 위하여 흙을 파고 임시 만든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오래된 무덤의 해골(古墳骸骨)이 보였다. 하늘에서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땅은 진흙탕이어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는데, 다시 밤을 맞았을 때 문득 귀물(鬼物)이 나타나서 원효는 괴이함을 느꼈다. 이 순간의 깨달음을 원효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어젯밤 토감에서 잘 때는 편안했는데
 오늘밤 무덤[鬼鄉]에 의탁하니 근심이 많구나.
 알았다! 마음이 일어나니 갖가지 법[法]이 생겨난다는 것을
 마음이 멀하니 토감과 무덤은 둘이 아니구나.
 또한 삼계(三界)는 오로지 마음뿐이며
 만법은 오로지 인식에 의한 것이니
 마음 바깥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디서 따로 구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당에 가지 않겠노라.⁶⁾

“이것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핵심 구절을 놀랍게 자리바꿈한 원효의 오도송이었다.”⁷⁾ 토감이라 여겼을 때는 편안했으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몸을 맡기니 귀물이 생겨났다.[1,2행 : 生滅, 相] 그렇다면 귀물은 마음가짐에 따라 일어난 것일 뿐이니, 토감이나 무덤이나 사실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 깨달음이 벼락처럼 내리쳤으니, 원효는 굳이 알았노라 밝혔을 터이다.[3,4행 : 眞如, 法=一心의 用] 진여와 생멸은 일심(一心, 體)이 일어나 작용하는 데 따르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이미 얻었으므로, 원효로서는 이제 일심의 도를 구하러 굳이 당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때 원효가 깨달은 바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해설서인

6) 이상의 「唐新羅國義湘傳」 내용은 贊寧, 『宋高僧傳』 제4권(『大正新修大藏經』 제50책, 729면) 원문을 줄여, 필요한 대목을 정리한 것이다.

7) 고영섭,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운주사, 2016, 17면.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별기(別記)』의 깊이와 긴밀하게 대응하는데, 일심(一心) 이문(眞如門, 生滅門)을 구체적으로 논술한 ‘해석분(解釋分)’이 『대승기신론』의 핵심 내용이고 보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에 실린 요석 공주와 원효의 정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원효는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 보련다.”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 태종무열왕이 그 말을 듣고 “대사가 아마 귀한 여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나라에 위대한 현인이 있으면 이로움이 막대할 것이다.”라고 하여 원효를 궁으로 불러 들였다. 이리하여 원효와 요석공의 공주는 인연을 맺었고, 그 결과 태어난 자식이 설총(薛聰)이다. 설총이 태어난 후 원효는 속인의 의복으로 바뀌 입고 스스로를 소성거사(小姓居士)라 불렀다.⁸⁾ 여기 등장하는 요석 공주와 설총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비하다. 황영선은 요석 공주가 태종무열왕의 둘째 딸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⁹⁾ 설총의 출생연도는 대체로 655년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근거가 불확실하며 태종무열왕이 즉위했던 시기 원효와 요석 공주가 얼마 간 동거했다는 사실 정도만 분명할 따름이다.

이 대목에서 고영섭의 추론이 흥미를 끈다. “계율에 관한 다수의 저술을 남긴 원효로 볼 때 깨달음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젊은 날의 치열한 수행의 이력을 되짚어보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 소개된 요석 공주와의 인연은 “유학을 그만두고 돌아온 661년 몇 월 이후부터 태종무열왕이 승하하기 이전의 6월 며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어야 할 일이다.”¹⁰⁾ 『대승기신론소』와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의 유사한 사유 구조를 염두에 둔

8) 일연, 앞의 글, 467면.

9) 황영선, 앞의 책, 34면.

10)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원효, 한국 사상의 새벽』, 한길사, 2009, 88면.

다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커질 듯하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의 이문 일십의 구조를 원용하여 『열반경중요』에서는 열반경과 불성문의 이문 일미의 구조로 변용하였다. 진여문은 열반문에 상응하고, 생멸문은 불성문에 상응한다. 이러한 구도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만일 중생이 다하면 부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생이 있기에 교화가 있는 것이다.”¹¹⁾

생멸이 펼쳐지는 세계에서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나니 이것이 일어난다. 원효의 오도송에서 어젯밤과 오늘밤의 대비가 이를 보여준다. 어젯밤의 편안은 오늘밤의 근심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오늘밤의 근심은 어젯밤의 편안과 대조되면서 괴이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마음의 작용으로써 빚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는 생멸문이 드러나지 않는다. 생멸의 상이 실체이고 전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마음의 작용, 즉 진여의 관점에서 본다면 편안이니 근심이니 하는 따위는 그저 스스로 지어낸 허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멸문은 진여문을 통해 드러난다. 역으로 진여문은 생멸문에 의지하여 개시된다. 눈앞에 펼쳐진 상을 통해서만 진여의 문을 여는 법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생멸문과 진여문은 둘이되 하나이며, 하나이되 둘이다.[不二] 생멸문과 진여문의 관계가 그러하므로 중생과 부처의 관계 또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오각성한 원효가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효가 요석 공주와 인연 맺은 시기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화중생에 나서기 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요석 공주를 둘러싸고 벌인 원효의 기행은 무애행(無涯行)의 한 단계로 파악할 만한 해석 단서가 마련된다. 660년

11) 고영섭,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운주사, 2016, 288~289면.

백제를 병합한 태종무열왕으로서는 아마도 민심을 수습해 별만한 원대한 이념이 요청되었을 터이며, 자신의 깨달음을 신라 전역의 중생들에게 퍼뜨리려는 원효로서는 권력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 있다. 기실 소성거사로 나선 이후에도 원효는 신라의 중앙권력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¹²⁾ 그리고 이는 비록 현대의 민족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삼한일통(三韓一統)에 근거한 민족의식과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관념 사이의 긴장을 포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힌 이 대목을 작가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III. 한 명의 원효, 다섯 개의 시물라크르 원효

1. 이광수의 『원효대사』 :

멸사봉공(滅私奉公)으로 성전(聖戰)에 임하라는 원효¹³⁾

역사소설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원효대사』는 원효의 생애에 그다지

-
- 12) 668년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신라군은 당나라 군대와 합세하고자 했다. 만날 날짜를 문의하니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종이에 난새와 송아지를 그려 보냈다. 나라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원효법사에게 물으니 속히 회군하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어 신라군은 몰살을 면하였고, 다음 날 김유신은 반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일연, 『태종춘추공』, 앞의 책, 137면) 원효가 군공(軍功)을 세웠다는 자료는 이 기록이 유일하다.
- 13) 민족과 관련하여 이광수의 『원효대사』는 현재 상반된 두 해석이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김준태의 『통일과정시대의 인물 : 원효의 현재성-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 재출간에 즈음하여 붙이는 글』(『원효대사』 1, 화남, 2006)이라든가 정효구의 『한국문학에 그려진 원효의 삶과 사상-소설문학을 중심으로』(『분황 원효가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자료집,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17.3.18)는 민족주의 맥락에서 읽어온 대표적인 사례이며, 친일파시즘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 최근 논의로는 박근섭의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통해 본 전시동원체제와 식민교육의 성격』(『教育問題研究』 제46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을 꼽을 수 있다.

관심을 두고 않고 구성된 창작물이다. 몇 가지 사실만 살펴보자. (1) 출가: ① “십칠 세 되던 해에 조부도 병몰하자 원효는 곧 출가를 결심하고” 살고 있던 집을 절로 만들었다.¹⁴⁾ 그런데 소설 앞부분에는 다음 문장이 제시된 바 있다. “왕 이년 삼월에, 즉 거진 부자가 용장하게 싸워 죽은 이듬해에 백제군이 또 쳐들어왔다.”(1, 43) 이로써 가상인물 거진(擧眞)이 목숨을 바친 전투는 진성여왕이 즉위했던 647년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은 원효가 화랑으로 참전하여 적진에서 거진의 시신을 안아오는 수훈을 세웠다고 전개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때 원효의 나이는 31세이니 17세 출가와는 모순되고 만다. ② 유신(595~673)·춘추(604~661)·원효·거진·관창 등이 문노(文奴, 538?~606?) 문하에서 화랑으로 활동하였다는 설정도 수궁하기가 곤란하다.(1, 117과 1, 36) 열 살 남짓인 김유신은 어찌어찌 이해한다고 쳐도, 김춘추는 화랑이 되기에 너무 어렸으며, 나머지 셋은 문노 사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2) 유학: ① “원효는 지금으로부터 십 년 전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때 원효는 스물세 살, 의상은 스무 살이었다.”(1, 104) 원효가 회상을 시작하는 시점은 진성여왕이 죽은 654년이니, 이로부터 십 년 전이면 644년이 된다. 하지만 앞서 정리하였던 것처럼 원효의 제2차 유학 시도는 661년에 있었고, 이때 원효의 나이는 45세였으며, 의상의 나이는 37세였다. 그리고 유학이 644년에 감행되었다고 할라치면 원효의 나이를 28세라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644년 스님 신분으로 유학을 시도했다는 설정은 647년 원효가 화랑으로 전쟁에 참여였다는 내용과 모순되기도 한다. ② “두 사람은 양주까지 배를 타고 가서 낙양을 향해 걸었다.”(1, 104면),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갈 때 호구(虎丘)에서 선묘라는 여자의 방에 들어갔던 것을 생각하였다.”(1, 165) 원효는 당으로 유

14) 이광수, 『원효대사』 1, 화남, 2006, 146면. 이하 3-1절에서 인용 뒤 괄호 안의 앞 숫자는 같은 책의 인용 권수, 뒤 숫자는 인용 페이지를 가리킨다.

학 갔으리라 보기 어려우며,¹⁵⁾ 더군다나 선묘(善妙)는 의상과 관련이 있을 뿐 원효와는 생면부지였다.

(3) 기타 : ① “거진량(擧眞郎)과 관창량(官昌郎)이 아유다의 배필로 경쟁자가 되었다가”(1, 31) 결국 거진량이 아유다를 아내로 삼게 되었다고 했는데, 거진이 죽었을 때 관창(645~660)은 겨우 서너 살에 불과했다. 따라서 거진과 관창을 연적 관계로 설정한 것은 무리다. ② 자료가 뚜렷하게 남아있지는 않으나, 대안(大安)은 유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⁶⁾ 그런데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안이 원광법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수(隨)시대에 오(吳)의 호구산(虎丘山)에서였다. (…중략…) 지공(智公) 혜가(慧可)도 만나 달마(達磨)의 설법도 들었다.”(1, 98면) ③ 원효가 요석궁을 떠나 요석 공주와 헤어진 지 삼 년 되었다고 했다(2, 119면) 뒤에서 일 년 반이 지났다고 하고 있다.(2, 157)

그렇다면 과제와 깨달음은 어찌 변형되는가. 이광수가 쓴 『원효대사』의 참된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먹었어도 원효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다.(1, 105~6) 그로부터 십 년 뒤 원효는 공주의 절박한 애원에 파계한다. “원효사마께서 아니 오시면 이 칼로 이 몸의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있었소.”(1, 181) 파계 뒤 죄책감에 시달리는 원효는 이를 씻어내기 위해 방랑과 수련에 나섰다. 그러다가 작품 말미에 가

15) 영명연수(永明延壽)의 『종경록(宗鏡錄)』(961)에는 의상과 함께 당으로 건너간 원효가 스승을 찾아가다가 토감에서 시체 썩은 물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 있고, 혜홍(慧洪)의 『임간록(林間錄)』(1107)에는 당으로 건너간 원효가 토감에서 해골의 물을 마신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불교학계에서는 대체로 『송고승전』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다.

16)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귀족(왕조)불교를 전개한 사람들이 모두 유학파(국외파)들이라면, 서민(대중)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를 전개한 사람들은 모두 국내파였다는 것이 대비된다. 원광·안함·자장·명랑·의상(의상은 두 쪽을 아우른 측면이 있다)이 국외파이자 국가를 중심으로 불교를 전개했다면, 혜숙·혜공·대안·원효 등은 서민을 중심으로 불교를 펼쳤던 점이 뚜렷하게 경계 지어진다.”(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 원효, 한국 사상의 새벽』, 56면.)

서 죽음에 맞닥뜨려 두려움을 견어내었을 때 원효는 비로소 “해탈청정보전(解脫淸淨寶殿 : 해탈을 얻어 맑고 깨끗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2, 301) 기실 이러한 방식의 깨달음은 작품 내에서 먼저 제시된 바 있다. 원효의 제자 의명(義明)은 두려움을 극복하여 살아있는 뱀의 목을 쥐어 죽임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 “대체 무엇을 아껴서 무서워하였는가. 의명은 몸을 결박하였던 쇠줄이 끊어진 듯 함을 느꼈다.”(2, 223)

원효, 의명의 깨달음이 하필 죽음과 대면하여 이를 끌어안아야만 가능해지는 까닭은 이광수 방식의 자비(慈悲)가 죽음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몸을 살리시느라고 당신 몸을 버린 것이요. 저를 버리는 마음—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니 이것을 자비라 이르는 것이요.”(1, 191) “범부는 저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보살은 중생을 건지기 위하여서 남을 죽이니라. (…중략…) 보살은 삼계 중생을 다 죽여도 살생이 아니니라. 자비니라.”(2, 99~100) 종교의 장막을 둘러섰으나, 중생[共]을 위하여 자신[私]의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제가 내세웠던 멸사봉공(滅私奉公) 논리에 불과하다. 작가가 겨냥하는 바는 다음 대목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충의, 필살(必殺), 필사(必死). 임금을 위하여 이놈을 꼭 죽여야 한다, 내 목숨을 안 돌아본다, 이것이요. (…중략…) 충의의 칼에는 선신(善神)의 가지(加持)가 있어서 공을 도우니 재주 없는 칼이 능히 재주 많은 칼을 이기는 것이다.”(1, 197~8) 여기서 죽음을 감수하여 지켜야 할 대상은 중생에서 임금으로 바뀌었으나, 중생이 귀일해야 할 대상이 임금이라면, 결국 중생은 임금의 다른 표현인 셈이 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원효대사』가 연재될 당시 천황귀일(天皇歸一) 담론이 요란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⁷⁾

17) 교토학과의 거두 니시다 기타로가 쓴 다음 문장은 천황귀일 담론의 요체를 간명하게 드러낸다. “황실은 과거와 미래를 감싸는 절대 현재로서 우리는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에 일하고, 여기에 죽는다. 때문에 일본에서 주권은 제정일치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일제가 벌인 침략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떠받들었던 이광수의 입장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구축되었다. 성전이란 전쟁이 차별 세계를 무차별 세계로 이끄는 방편이라는 인식 위에 작동하는데, 이를 위하여 일제가 내세웠던 이념이 팔굉일우(八紘一宇 : 도의로써 천하를 하나의 집처럼 만듦)였다. 이를 좇아 이광수는 단편 「육장기(嚮庄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마는 동시에 전쟁을 아니 할 수 없단 말요. 만물이 다 내 살이지요마는 인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인류가 다 내 형제요 자매이지마는 내 국민을 사랑하게 되니 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인연이 먼 이를 희생할 경우도 없지 아니하단 말요. 그것이 불완전 사바세계의 슬픔이지마는 실로 숙명적이요.”¹⁸⁾ 그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이 『원효대사』의 다음 구절이다. “일체중생을 건지는 것이 보살의 원”이지만, “속인은 그럴 수 없다. 남보다도 제 가족을 위하여 빌 수밖에 없다.” 그러한 까닭에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물건을 취하고, 또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최소한의 탐욕이다. 이렇게 한 집을 이루고 최소한의 죄를 지으면서 최대한도의 공덕을 쌓는 것이 인생의 가정생활이다.”(2, 167~8) 그러니 소설 안에서 “일시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아주 화근을 끊어” 버리기 위하여 백제·고구려와 “두 번 큰 전쟁을 하여야 할 거라고” 판단하는 원효를 소설 바깥에서 성전을 응원했던 작가 이광수라 이해해도 그리 틀림이 없겠다.(1, 236~7)

천황제 이념으로 얼룩진 이광수의 원효는 불교와 신도(神道)를 접합시키는 면모도 드러낸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 사상’을 멸사봉공의 맥락으로 해석한 뒤, 이를 신도의 가르침과 일치시켜 내는 것이다. 이광수가 파악하는 공의 요체는 이러하다. “석가세존의 천언만어가 일언이폐지하여

와 같이 종교적 성질을 갖는 것이다.”(西田幾多郎, 『國家理由の問題』, 『西田幾多郎全集』第 十卷, 東京: 岩波書店, 1978, 333면.)

18) 李光洙, 『嚮庄記』, 『文章』, 1939.9, 34면.

빌 공(空)자 하나니 공이라는 것은 ‘나’를 비게 한단 말이라, 속에 ‘내’가 가득 차고야 충효를 어찌 행하며 신용인은 어찌 행하오.”(2, 42) 신도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하는 “앙아신은 허공신이요 창조신이기 때문에 아무 형상이” 없으며(2, 27), “앙아 수련이 무비 나를 비게 하는 것”(2, 42)이니 가르침이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고신도는 곧 고불(古佛)의 가르치심으로 석가세존이 성도하신 것도 고불의 가르치심을 받으심이니 고불은 곧 우리 조상이시오, 고불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말 속에 있다고 하엿다.”(2, 40)

이러한 맥락에서 이광수가 비로자나불을 굳이 ‘대일여래(大日如來)’라고 표기하는 양상도 주목을 요한다. 신도에서는 앙아신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일광같이 맑게 밝게 하는” ‘강아사 수련’을 거쳐야 한다.(2, 12) 이는 “일신(日神)의 하시는 일이요, 은혜”를 받드는 과정인데(2, 12), 불교에서의 대일여래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 “스님도 빛을 받고 소승도 빛을 받고 이 너구리 새끼들도 빛을 받고 저 풀과 나무들도 같은 빛을 받지 아니하오. 이것을 일러서 평등보시범문이라 하오. 범계가 온통 대일여래의 한 자비심인(慈悲心印)이란 말요.”(1, 157) 따라서 불교와 신도가 이광수를 매개로 하여 접합되는 지점에 옥일(旭日), 즉 일제의 상징이 자리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기실 이광수가 “독자에게는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1, 224), 굳이 한민족 고신도의 신들을 명확한 자료도 없으면서 장황하게 설명한 까닭은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와의 연관성을 암시하고자 했기 때문일 터이다. “신라에서 존송하던 중요한 신들을 통틀어 말하면, 가나라사이다. 이것을 한꺼번에 읽으면 ‘거느리시와’가 된다. 거느리시와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요, 일본어의 ‘가나라수(カナラス)’와 같은 말이다. 백제의 가나다, 또는 가나다라(クダラ)라고 하는 것과 같다.”(2, 230) 이는 일제가 내세웠던 동조동근(同祖同根) 논리에 부합한다.

이광수가 재현해 낸 고신도의 면모가 그러하니 고신도를 옹위하였던

화랑은 멸사봉공 정신의 구현체로 제시된다. “나라에 바친 몸이라 언제라도 부르시면 간다는 것이요, 한번 전장에 나가면 살아서는 아니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춘추도 유신도 다 화랑 출신이었다.”(1, 235) 물론 이 역시 일제가 당대 청년들에게 요구했던 바와 일치한다. 그리고 김유신의 내력에 대한 긴 설명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이념을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 즉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가야와 신라의 관계로 유비시킨 후, 복속당한 나라 출신으로서 성공한 모델로 김유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김유신의 내력에 관한 내용은 “유신은 본래 신라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가야국(가라, 금관) 사람이다.”(1, 124)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유신이 선대에 가야국 사람이라 하여서 그 충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1, 130)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광수의 『원효대사』는 팔굉일우, 천황귀일, 내선일체·동조동근 따위의 논리를 훌쩍려놓고, 이를 실천해 나갈 멸사봉공 이념의 체득을 향해 내달리는 소설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굳이 원효의 생애 및 사상 복원이 필요할까. 이광수가 원효의 구체적 생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자리한다.

2. 남정희의 『소설 원효』: 여성 판타지로서의 원효

남정희가 완성한 『소설 원효』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원효는 말 잘 하고 글 잘 쓰고 활 잘 쏘고 말 잘 타며, 씩씩하고 용감한 신라의 잘난 남자 중에서도 그 으뜸이었기에 가는 곳마다 여자의 유혹이 줄을 잇고 따라다녔다.”¹⁹⁾ 작품 앞부분에서는 진덕여왕의 사랑이 절박하며, 진덕여왕이 원효를 그리며 죽어간 이후에는 요석 공주

19) 남정희, 『소설 원효』(상), 도서출판 장원, 1992, 150~151면. 이하 3-2절에서 인용 뒤 괄호 안의 앞 상·중·하는 같은 책의 인용 권, 뒤 숫자는 인용 페이지를 가리킨다.

가 그 뒤를 잇는다. 요석 공주가 남장하여 원효를 찾아 떠도는 동안에는 은서라, 은서라의 어머니 등이 그러한 역할을 떠맡고 있다. 드디어 요석 공주가 원효를 찾아내었을 때, 그동안 여인들의 육체 공세를 적절하게 막아 내었던 원효는 그만 허물어지고 만다. 따라서 『소설 원효』가 원효와 어린 설총의 만남·이별에서 끝맺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원효와 요석 공주가 맺은 사랑의 결실이 바로 설총일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소설 원효』는 불교와 별 관계가 없다. 경전 문구가 등장한다고 우길 수 있겠으나, 이는 원효가 대중에게 설교할 때 날 것 그대로 노출되고 있을 따름이며, 소설 전개와 곁도는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니 원효가 언제, 왜 출가했는가에 관한 물음을 담아 내지 못하게 되었고, 원효의 깨달음이 어떤 내용과 의미인가에 대한 관심도 드러낼 수 없었다. 또한 원효가 스스로 소성거사라 칭하여 무애행(無礙行)에 나선 이유를 하화중생(下化衆生)과 연결시키기는커녕, 파계에 따른 죄책감이 워낙 큰 데 따라 발생한 광기(狂氣)의 발로로 처리하고 있는 대목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소설의 문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설 원효』는 결함이 크다. 첫째, 원효의 설화를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예컨대 원효가 상추쌈을 먹다가 던지자, 원효가 던진 상추쌈의 물이 어느 산골 마을 불자의 집에 난 불을 꺾었다는 얘기(상권, 255면), 산속에서 만난 호랑이가 “나는 석가여래의 진리를 선포하는 원효다. 물러서라!”라는 원효의 호통에 인간의 말로 “그대의 신심이 천지를 진동하니, 나 그만 물러가요.”라고 인사하고 사라지는 장면(중, 118) 따위는 쉽게 수궁하기가 어렵다. 둘째, 작가가 소설 표면에 등장하여 원효의 행적을 찬양하는 것도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지만, 다음과 같이 시공간을 건너뛰는 비교는 쉽게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원효의 웅변은 실로 감동적이었다. 로마의 시저보다도, 로마의 저 브루투스보다도 더 감동적인 웅변을 하고 있었

다. 로마의 시저가 자기를 죽이려는 브루투스에게 원효처럼 웅변을 하였더라면 아마도 시저는 브루투스에게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상, 277) 셋째, 모순되는 내용이 더러 나타난다. 예컨대 원효가 탁발하고, 남장한 요석 공주가 걸식할 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작가는 그 이유를 원효가 탁발할 때 불교는 경주 부근에서나 퍼졌을 뿐 시골로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요석 공주의 경우에는 사지 멀쩡한 사내가 구걸한다고 뺨박당했던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지 100여 년 지나 원효가 태어났으니 이러한 설정 자체도 문제지만, 작가는 그것조차 제 스스로 뒤엎어 버리고 있다. “그때 신라에서는 걸인을 거렁이라 하기도 하고 걸뱅이라 하기도 하였더랬다. 걸뱅이가 오면 신라 사람들은 사랑채에 후히 대접을 하여 보내곤 하였다. 걸뱅이들은 대개가 화랑이거나 승려들이었으므로 신라인들은 그들을 걸인 취급을 하지 않고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였더랬다.”(상, 258)

원효와 대안에 관한 이해 수준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해가 660년이며, 고구려를 멸하여 삼국을 통일한 해는 668년이다. 원효가 무애행을 행했던 시기와 삼국 통일 시기와 일치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행적을 담아낼 수는 있겠으나, 고구려·백제로 보낼 간첩 승들을 많이 길러낸 인물로 원효를 형상화하는 것이 합당한가는 의문이다.(하, 108) 출가 전 원효가 화랑도에서 활동하였다는 정보가 몇 번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식[신라]이나 민족의식[한민족]과 상관이 없이 다만 수 명 혹은 수십 명의 산적 따위를 홀로 제압하는 활극 장면에서 정당화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대안이 원효에게 육식을 권하면서 정당화하는 논리도 조야하기 이를 데 없다. “천지만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요. 악인이 만물을 먹으면 식물이거나 동물이거나 억울해서 벌벌 떨지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수도자가 먹으면 기뻐서 춤을 춘다오. (…중략…) 모든 만물은 원효 대사가 먹어주기를 고대하고 있단 말이

요.”(하, 117) 불교사상은 도저한 인간 중심주의에 묶여 있지 않으며, 과거 했다고는 하나 원효·대안이 스스로를 세계 한가운데 세우고 만물 위에 군림할 만큼 깨달음이 낮지도 않았을 터이다.

기실 남정희의 『소설 원효』 위에는 이광수가 쓴 『원효대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광수가 만들어낸 삽화가 그대로 옮겨진 경우도 더러 있거니와, 이광수 역시 연애소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원효의 상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글 잘 하고, 말 잘 하고, 칼 잘 쓰고, 기운 좋고, 날래고, 거문고 잘 타고, 노래 잘 하고, 잘 놀고, 이 모양으로 화랑 중에도 으뜸 화랑이었다.”²⁰⁾ 그렇지만 이들 작품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니, 이광수는 이광수 방식의 깨달음을 향하여 원효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려낸 반면, 남정희는 그러한 흐름이 없이 다만 여성들의 거친 애정 공세를 원효가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맞춰 형상화하는 데 멈춰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남정희의 『소설 원효』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질 법한 판타지를 원효에게 투사해낸 판타지 소설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3. 한승원의 『소설 원효』: 평민불교에 뿌리 내린 반전주의자 원효

한승원의 원효는 반전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러한 성격을 한꺼번에 드러낸다. “내 삶의 결론을 말한다면 내 조국은 신라이면서 동시에, 백제국이고 고구려국이고 대국이고 대식국이고 파식국이고 왜국ियो. 아니 사해의 모든 나라들이요. 나는 서라벌로 돌아가 김춘추를 향해 외칠 것이요. 당나라와 더불어 고구려를 치기 위해 내보낸 군사들을 철수시키라고. 이 나라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고 싶거든 당장에 나라를 들어 부처님께 참으로 헌상하라고요.”²¹⁾ 이러한 측

20) 이광수, 「작가의 말 : 내가 왜 이 소설을 썼나」, 『원효대사』 1, 18면.

면에서 한승원의 원효는 불토국 건설을 위하여 성전 참가를 독려하였던 이광수의 원효와 대척점에 서 있다. 또한 이광수의 원효가 천황으로 귀의하는 반면, 한승원의 원효는 민중으로 수렴한다는 사실도 대조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내기 같은 싸움을 하는 동안, (…중략…) 신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죽고 얼마나 살아남게 되겠습니까? 땅과 성을 빼앗으려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은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왕과 그 왕을 둘러싼 지배계층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하지 말고, 지배당하는 중생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2, 170)

반전주의자 원효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작가는 픽 체계적으로 원효의 생애를 재구성해 나갔다. 먼저 한승원은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원효가 출가한 시점을 동진출가로 설정하였다. 열 살 때 이복누이 달이와 각시놀이를 했다는 진술이 나타나 있으며(2, 204), 열다섯이 되면 낭도로 삼으리라는 김유신의 약조를 뿌리치고 출가하였으니(1, 111면), 원효의 출가는 열살과 열다섯 살 사이가 될 터인데, 낭지(朗智)를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찾아 나선 과정에 어린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출가 즈음 원효의 나이는 열 두어 살 정도로 파악하면 무난할 듯싶다. 작가가 하필 낭지를 원효의 스승으로 지목한 까닭은 『삼국유사』의 내용에 근거했을 터이다. 『삼국유사』에는 원효가 반고사(幡高寺)에 머물렀을 때 낭지를 자주 찾아 가르침을 청하였고, 낭지가 원효로 하여금 『초장관문(初章觀文)』과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짓도록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²²⁾

21) 한승원, 『소설 원효』 2, 비채, 2006, 151면. 이하 3-3절에서 인용 뒤 괄호 안의 앞 숫자는 같은 책의 인용 권수, 뒤 숫자는 인용 페이지를 가리킨다.

22) 일연, 「낭지의 구름 타기와 보현보살 나무」, 앞의 책, 565면. 고영섭은 『삼국유사』에 실린 원효의 계(偶)로써 낭지와 원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이 시구를 보면 자신을 서곡(西谷) 사미로 낮추고 가르침을 준 낭지화상에게 제자의 예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의 두 저술이 낭지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리포트 내지 졸업논문과도 같은 글이 아니었을까?”(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58면)

동진출가를 감행함으로써 『소설 원효』의 주인공은 두 가지 지점에서 불교사상에 착근할 근거를 얻게 되었다. 첫째, 원효의 출가에 나름의 발심 근거가 생겼다. 어머니·달이의 죽음, 전쟁에 나가 공훈을 세우려다 죽은 숙부·아버지 등은 그로 하여금 삶과 죽음, 평화와 전쟁 따위에 관한 철학적인 물음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왜 사람은 죽는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사람들은 서로 정답고 화평하게 살지 않고 상대를 죽이고 상대의 땅을 빼앗으려 하는가.”(1, 101) 그러니 출가자로서의 수행은 이러한 물음을 풀어가기 위한 과정이 될 터이다. 둘째, 화랑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화랑 바깥에서 화랑제도를 관통하는 이념 체계를 관찰하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 속에서 불심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화랑도란 무엇인가. “낭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이 아니고, 수련을 위해 하는 대결이기는 하지만 이 대결에서도 행복은 행복인 것이고, 행복은 화랑으로서의 불명예이고 불명예는 죽음 그 자체니까.”(1, 267)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며 원효는 다음과 같은 사상을 다져 나간다. “낭도들의 저 수련은 정의를 앞세운 광기이다. 정의를 앞세울 때 인간은 속에 들어 있는 용감 같은 광기를 주체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발산해야 하는 마성을 지니고 있다.”(1, 271)

영글지 못한 사상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기술해 나가는 과정은 지리해질 공산이 크다. 관념적 내용을 날 것 그대로 중개하는 데 급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승원은 『삼국유사』의 여러 설화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한편, 이를 격변하는 역사의 현장과 병치시킴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해 내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선택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원효 수준 불교사상가의 출현을 평지들출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터, 평민불교를 이끌었던 혜공(惠空), 혜숙(惠宿), 대안(大安), 낭지 등 당대 승려들과의 교섭을 통한 영혼의 성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

다.²³⁾ 또한 모호하고 상징적인 설화의 내용을 현실 지평으로 끌어내려 독창적으로 해석해 내고 있는 측면도 꼭 흥미롭다. 그리고 원효가 성장해 나가는 세계의 반대편에는 온갖 야망과 원한 그리고 음모·술수, 정치 세력 간의 함종연횡이 횡행하는 김유신·김춘추 등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여기에서도 『삼국유사』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보다 돋보이는 것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 및 문화 양태를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물들을 복원해내는 측면이다.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나가던 원효가 유학에 나섰다가 깨달음을 얻고,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는 것은 김유신·김춘추의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이다. 이 대목에서 원효가 읊었던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짊어 보련다.”의 뜻을 해석하는 한승원의 견해가 독특하다. 전쟁이 벌어지자 시장으로 뛰쳐나간 원효는 반전 시위를 선동하며 외친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소중한 목숨을, 전쟁 일으킨 임금과 몇몇 대각간 이찬 파진찬들과 장군들을 위해 바치지 않습니다. 뜻있는 자는 나서십시오.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기둥을 깎을 도끼가 없습니다. 모든 도끼들은 자루가 빠져 있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루 빠진 도끼를 주면 나 스스로 자루가 되어 기둥을 깎아 하늘을 받칠 것이요.”(2, 86~7) 원효 자신이 도끼 자루가 될 터이니 자루 빠진 도끼인 중생이 나서 준다면 무너지는 하늘을 바로 세울 수 있다[反戰]라는 해석이다.

태종무열왕으로서는 반전시위를 펼치는 원효가 달가울 리 만무하다.

23) 이는 당대 상황과 대조하여 평가한다고 해도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서당(원효-인용자)의 어린 시절에는 이미 원광·안함·지장 등의 고승들이 귀족(왕실 중심)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불교를 펼치고 있었다. 동시에 낭지·혜숙·혜공·대안화상 등이 대중불교(서민 중심)를 펼치고 있었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왕실 중심의 귀족불교에는 미치지 못했다.”(고영섭, 위의 책, 29면.)

그러한 까닭에 그는 원효를 제거하고자 했는데, 원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석 공주에게 제시한 유일한 타협책이 원효의 당 유학이었다. 왕과의 흥정이 끝나자마자 요석 공주는 밤길을 달려 원효에게 찾아간다. “부디 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라벌에 머무르시면 목숨을 부지할 수 마저 없게 됩니다. (...중략...) 시방 당장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소녀는 의상스님 속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재촉하겠습니다.”(2, 122) 이리하여 원효는 2차 유학을 떠나게 되나 당주계로 가던 도중 토감/무덤에서 깨달음을 얻어 다시 서라벌로 돌아오고 만다. 서라벌로 돌아와서 다시 반전시위를 벌이던 원효는 요석궁에 연금 당하였고, 이때 태종무열왕은 원효의 ‘자루 없는 도끼’ 구호를 다음과 같이 뒤집어 버렸다. “원효스님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내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시방 요석 공주가 원효스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부디 좋은 인연 되어 장차 세 나라를 통합한 신라의 하늘을 곳곳하게 떠받칠 인물을 하나 생산하도록 하시오.”(2, 196)

한승원의 이러한 원효 해석은 불교계의 연구 동향과 일치하는 바 있다. 앞서 인용하였듯이, 고영섭은 사상의 성숙 과정을 전제한다면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원효가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었다고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승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은 각각 『열반경 중요』의 열반문·불성문에 상응할 만큼 유사한데, 유학을 떠나는 원효의 심리 및 고민에서 그 뿌리가 하나였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나는 지금 당나라로의 유학을 핑계로 중생들을 외면한 채 먼 곳으로 달아나고 있다. 수레에 중생을 신지 않고 나 혼자만 타고 간다. 서라벌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해 있는 자들의 위해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왜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가. 왜 비굴해지는가. 두려워지고 비굴해지는 마음은 어찌하여 생기는 것인가. 비굴해지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주를 만드는 씨앗을 찾아낼 수 있는가.”(2, 129) 따라서 원효가 깨달은

바를 중생과의 관계에 겹쳐서 풀어낸 것은 『소설 원효』의 깊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요석 공주의 형상화도 설득력이 있다. 요석은 출생부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뒤흔들린 형국이었으며, 김춘추의 야욕에 따라 정략결혼으로 내몰렸고 몇 달 뒤 백제와의 전쟁에 출전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다. 언니와 형부 또한 백제에 의해 죽었으며, 동생 또한 정략의 희생이 되고 있다. “소녀의 아버지는 복수와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입니다. 당신의 셋째 딸 지소는 막리지 김유신 대장군의 조카 아납니까? 한데 그 딸을 김유신에게 환갑 선물로 시집보냈습니다. 당신의 권력을 한 방울도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 힘을 모아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통일 국가를 만들어놓겠다는 것입니다.”(2, 61) 원효를 향한 사랑도 사랑이려니와, 원효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공명이 요석에게 이르러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까닭이 드러난다. 권력-체제 바깥에서 권력의 의미와 무상함을 따지면서 중생의 편에 자리한 원효가 요석 공주에게 존재 근거를 마련해줄 인물로 떠오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훗날 요석 공주가 출가하는 까닭도 이로써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연금에서 풀리자 원효는 산비탈의 땅굴을 터전으로 살아 복성거사(卜姓居士)로 처신하기 시작한다. 거사라고 하였으나, 기실 삶의 면면은 불도를 닦던 시절과 다를 바 없고, 불교사상에 착근한 반전사상은 영향력을 얻기 시작한다. 통일신라가 제국인 당과 직접 마주하게 되자 발생한 문제들은 원효가 예측했던 그대로였고, 점령자로서 신라의 폐악을 질타하는 한편 백제 유민들을 위무할 수 있는 자격은 원효에게만 허용된 양상이었으며, 전쟁에 침묵하는 당의 승려들을 매섭게 몰아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나오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광수·남정희의 소성거사가 병들고 굶주린 중생들을 찾아다니며 죽음을 무릅쓰고 구호 활동을 펼친다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한승원의 소성거사는 사상가로서의 풍모가

한결 강조된 양상이라 하겠다. 이광수·남정희와 한승원의 이러한 차이는 중생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될 터이다. 민족의 선지자로 자처했던 춘원에게 민중(중생)은 한낱 계몽의 대상으로 자리하였다. 남정희에게 중생은 원효 판타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생은 구제의 대상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그렇지만 한승원에게 중생은 누군가의 구제를 기다리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중생들은 어느 누구의 수레에도 실려 가서는 안 됩니다. 싣고 가려 해도 실려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절대고독의 존재들입니다. 어디서든지 주저앉으면 그 자리가 그의 지옥이고 극락입니다. 자기 고독을 자기 혼자서 내내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중생들도 스스로 자기의 독자적인 수레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자기들의 수레에 싣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똑같은 자격으로 떳떳하게 아미타 세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1, 258) 『소설 원효』의 주인공이 지나친 이를 돌아보면서 문득 관세음보살의 현신(現身)이 아니었던가, 되새기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 까닭은 작가가 중생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일 터이다. 원효가 중생을 일심의 구현체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한승원의 해석은 큰 무리가 없다 하겠다. “중생 마음의 마음됨은 형상을 떠나고 성품을 떠나서 바다와 같고 허공과도 같다. 허공과 같으므로 형상이 융합되지 않음이 없거늘 어찌 동쪽과 서쪽이 있겠으며, 바다와 같으므로 성품을 보존하지 못하는데 어찌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겠는가.”²⁴⁾

24) 원효, 『佛說阿彌陀經疏』(『한불전』 1책) 562면 하;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153면에서 재인용.

4. 김선우의 『발원』 : 개별자로서 요석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원효

『발원』에 등장하는 원효는 근대인의 면모에 다가서 있다. 이는 요석과의 사랑을 중심에 배치한 까닭에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니 우선 원효와 요석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 읽어나가는 것이 『발원』 이해에 필요하겠다. 기실 요석과 만나기 전 원효의 행적은 쉽게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무모한 측면이 있다. 열여섯 살이 된 원효는 왜 화랑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던가. 육두품 출신으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의 장벽과 정면 대결하기 위해 서였다.²⁵⁾ 주지하다시피 화랑도는 정규군이 아닐 뿐 군사조직임에 분명하니, 낭도가 되는 순간 진검 쥐는 일은 당연한 의무로 부여된다. 그런데도 낭도가 된 원효는 살생 도구라 하여 진검 들기를 거부하고 나섰다.(1, 45) 그렇다면 승려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굳이 낭도(군인)에 자원했던 원효는 픽 경술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3년여 고민 끝에 내린 정면에서 현실과 맞서리라는 결의가 그렇게 진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해진다. 화랑도 내에서 적과 맞닥뜨려 살생하는 일만 피할 수 있다면 학문 담당 낭두가 되거나 적을 척후하는 소임 따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에도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자신의 활동이 군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몰각하고 있는 형국인 까닭이다.

낭도로 있을 때 원효는 요석과 처음 대면하였는데, 원효가 받은 첫인상은 한 문장으로 요약 가능하다. “도대체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마음을 읽는 듯한 이 신비한 소녀는.”(1, 83~4면) 원효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열세 살 소녀에 불과한 요석이 그 즈음 원효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사건의 전말뿐만 아니라, 원효가 고뇌하는 바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²⁶⁾ “당신이 옳아요. 나라도 그렇

25) 김선우, 『발원 : 요석 그리고 원효』 1, 민음사, 2015, 25면. 이하 3~4절에서 인용 뒤 괄호 안의 앞 숫자는 같은 책의 인용 권수, 뒤 숫자는 인용 페이지를 가리킨다.

게 했을 거예요, 원효랑.”(1, 83) 어떻게 요석은 원효와 아신이 사적 공간에서 벌였던 논쟁, 그러니까 굶주리는 백성에 대해 인의를 강조하는 원효와 부국강병으로써 굶주리는 백성을 없애야 한다는 아신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구체적인 현실 한가운데서는 무력한 동정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원효의 두려움까지 간파하고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리고 있으니 원효로서는 “한바탕 꿈을 꾸듯” 몽롱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1, 83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기는 말에서는 예지가 느껴지기도 한다. “돌아가 눈앞의 일들을 하세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1, 84) 그러니 원효에게 요석은 신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첫 대면에서부터 원효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요석은 이후 원효의 심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존재로 부각되는 양상이다.(1, 79) 예컨대 두 번째 대면에서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요석이 “생긱 웃자” 원효는 “가슴속 깊은 어딘가에서 통증이 육신, 순식간에” 지나가는 감각을 느꼈으며(1, 148), 세 번째 대면에서는 요석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원효의 심장은 쿵광거리 “그 목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속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아 눈앞이” 아련해질 정도에 다다른다.(1, 185) 원효는 이러한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석에 끌리는 철가루처럼 속절없이 포섭될 따름이다. 그리고 요석의 신비한 면모 또한 여전히 이어진다. 세 번째 대면이 이루어질 때 “마치 원효가 그 길을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요석은 “오동나무 아래 서” 있으며,(1, 184면) 원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여지없이 눈앞에 나타나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준다. 예컨대 백제군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부처는 이런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파하여 전진합니까.” 라는 식의 “질문이 들끓어 마음

26) 원효를 처음 만났을 때 요석의 나이가 열세 살이었다는 사실은 2권 105면에 나타나 있다.

의 고통이 덜어지지 않을 때면 더욱더 사무치게 요석²⁷⁾이” 그리워지는 원효인데, 때마침 나타난 요석은 “막막하고도 고통스러운 전장의 시간 역시 부처를 일깨우는 시간으로 써야 하리라는 무언의 전언”을 남기고 돌아간다.(2, 18과 20)

이렇게 본다면, 원효와 요석을 범상한 도반(道伴)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남녀 문제로 규정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원효는 사문(沙門)을 “마음속의 애착을 버린 존재”라고 규정한 바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 『발심수행장』에서 원효는 그 마음가짐만으로 사문의 자격을 엄중히 묻고 있으니 『발원』의 원효는 『발심수행장』을 써 내려가는 원효의 면모를 지워 버린 경우에 해당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이건대 『발심수행장』에서 원효는 사랑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다. “다음이란 것은 끝이 없는데 사랑하고 집착함을 끊지 못하는구나. 이 일은 한이 없는데 세속의 일 버리지 못하며, 그 피가 끝이 없는데 끊을 마음 일으키지 못하는구나.”²⁷⁾ 작품 전반부에서는 신성한 요석이 원효의 불심을 견고하게 이끌면서 원효의 연심(戀心)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나, 요석이 신성함을 잃는 후반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승려로서의 원효는 어떠한가. 백제군의 동향을 척후하러 나섰던 원효는 포로로 잡히고 마는데, 백제군 소년병이 그를 치료해 준다. 그 순간 신라군이 공격하여 성을 함락하고, 아신은 소년병의 처형을 명하나, 원효는 오히려 소년병과 함께 탈출해 버린다. 그런 뒤 승려가 되어 나타나니 원효의 출가 시기는 17세 즈음이 되겠다. 그의 스승 역할을 담당하는 이는 혜공이다. “원효는 여러 불경의 소(誦)를 지으면서 항상 혜공에게 찾아가 의심나는 것을 물었는데”라는 대목이 『삼국유사』에 등장하

27) 元曉, 雋譯, 『發心修行章』, 『韓國佛教全書』 제1책, 841면.

는데,²⁸⁾ 작가는 이를 근거로 삼은 듯하다. 스승이 혜공인 만큼 원효는 철저하게 민중불교에 입각해 있다. 귀족불교의 상징인 황룡사 백고좌 법회에 홀연히 등장하여 선덕여왕에게 “이곳 황룡사는 더 이상 수행의 장소라 하기 어렵습니다. 전각 곳곳의 공간들은 백성들의 혈세로 기름지며 왕실의 재물들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합니다.”라고 “날렵한 한 마리 백호”처럼 포효하며,^(1, 131)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황룡사 지장전 참배를 얻어내기 위하여 3장 높이 장륙존상 위에 올라간 소녀 편에 서서 황룡사 부주지와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출가 계기가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으니 반전주의자로서의 활동도 뚜렷하다.

불교에 대한 김선우의 기본 태도 및 역량은 이 가운데서 드러난다. 원효의 입을 통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의 결과여서 지금의 모든 행동이 전생에 규정된 것일 뿐이라면 인간이 스스로 수행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써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해는 귀족과 평민과 노예 계급이 전생의 업에 의해 정해졌다고 강조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 법에서 거리가 멉니다.”^(1, 242) 업에 대한 김선우의 이러한 이해는 이광수의 경우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어저께 과식하였으면 오늘은 배탈이 나서 밥을 굶어야 하듯이 금생에 빈궁한 사람은 모두 전생에 호화로운 탐욕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다. 금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내생에 병약한 몸을 타고 난다. 내가 음란한 값은 나 자신에게도 오거니와 내 자녀에게 영원히 따르는 것은 내 업보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내 업보다.”²⁹⁾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전해 받아 불조법맥 1조가 된 가섭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의상에게 비판하는 원효의 논리 또한 날카롭다. “부처님의 금

28) 일연, 『혜숙과 혜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다』, 앞의 책, 453~454면.

29) 이광수, 『원효대사』 2, 화남, 2006, 168면.

란가사라니요? 평생을 탁발하며 사신 붓다께 무슨 금란가사가 있겠으며, 누군가 비단으로 지은 가사를 바쳤다 해 부처께서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분입니다.” 이어지는 불조법맥에 대한 입장도 단호하다. 붓다가 열반에 들려할 즈음 아난다 존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지 물었다. “그때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후계자는 따로 없다. 영원한 스승은 내가 깨닫고 설파한 가르침이다. 그대들은 오로지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이야말로 영원한 그대들의 스승이다!”(2, 71~3) 불법의 무차별 정신을 강조했던 의상을 귀족불교 방향으로 몰아붙인다는 인상이 들지만, 『열반경(涅槃經)』 내용을 매개로 불교사상의 중요한 지점을 부각시키는 작가의 능력은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김선우의 원효는 요석에 대한 사랑 앞에서 결국 근대인으로 기울어지는 면모를 내보인다. 김춘추·김유신은 647년을 기점으로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선다. 비담의 난을 진압한 데 이어 선덕여왕이 승하하자 진덕여왕을 즉위시켜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민중불교에 입각하여 반전 운동의 거점으로 떠오른 불교공동체 ‘아미타림’과 사찰 분황사는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그리하여 김춘추는 아미타림을 해체하기 위하여 원효의 당 유학을 기획하고, 의상에게 이를 실현시킬 경우 유학 후 국사로 임명하겠노라 약속한다. 그렇지만 유학길에 올랐던 원효는 도당을 앞두고 깨달음을 얻어 서라벌로 돌아와 버렸다.³⁰⁾ 귀경한 원효가 분황사를 배경으로 반전 운동에 적극 나섰던 것

30) 원효가 첫 번째 유학을 시도했을 때는 34세(650년)였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45세(661년)였다. 『발원』에서 유학에 나선 원효는 “서른세 살의 원효”(2, 65면), “서른네 살의 수행자”(2, 117면)로 나타나면서 두 번의 유학 시도가 하나로 묶이고 있다. 왜 그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통합은 별다른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고구려로 들어서서 옥고까지 치르면서 나아가던 원효 일행이 굳이 고구려 승려 보덕의 뒤를 좇아 백제의 완산주로 유학 경로를 바꾼다는 설정이 의아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원』에서는 원효가 당으로 건너가기 전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송고승전』과 『임간록』의 내용을 혼용한 결과일 터이다.

은 당연하다.³¹⁾ 한편 원효가 유학길에 오른 뒤 아미타림은 해체되었고, 아미타림을 이끌었던 요석은 궁에 유배될 뿐만 아니라 맞선다는 이유로 제 아버지이자 이제 왕이 된 김춘추로부터 살해될 위기에 처한다. 요석을 어찌 구해낼 것인가. 원효가 근대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이다.

요석 출궁의 대가로 원효는 분황사를 내어주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왕 김춘추는 분황사의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분황사를 왕의 편으로 회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물론 원효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거래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만용”에 불과하다.(2, 188)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반전 운동의 불씨를 꺼뜨려도 어찌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결국 원효는 태종무열왕 앞에서 요석을 목숨과 같이 사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요석과 함께 서라벌을 떠나기로 약속한다. 이후 상황은 불교국토 건설이라는 미명 하에 전쟁이 전면적으로 펼쳐지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근대-체제의 가치관에서 보자면 원효의 이러한 선택에는 하등 문제될 바 없다. 근대의식이란 각각의 개별자(個別子, individual)들이 사회계약설에 근거하여 구성한 합체(合體, assemblage)가 사회라는 관점 위에서 작동하는바, 원효의 반전 운동은 누구와도 명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전개했던 것이 아니며, 그러한 까닭에 개별자로서의 욕망과 이해를 굳이 희생해야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승려 원효가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민중들과 달아오른 반전 움직임은 어찌할 것인가.

31) 『삼국유사』에 실린 원효의 자루 빠진 도끼 노래를 『발원』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피는 기둥을 깎겠다.”(2, 194면) 둘째,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받친 기둥을 찍어 버리겠노라!”(2, 195면) 전자는 태종무열왕이 해석한 바에 해당하며, 후자는 기존 체제를 뒤엎어 버리겠다는 의미가 된다. 원문 해석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영섭이 제시한 바 있다.(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91면)

아마도 작가는 “전쟁과 반전. 상충하는 두 견해가 전면에서 맞부딪히면 혹여 피를 부르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서 원효가 “이편과 저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내린 선택이라고 주장할 듯한데,^(2, 197) 불상사만 막았을 뿐 전쟁에 관한 한 현실을 아우르게 된 것은 태종무열왕의 성전 담론이며, 원효로서는 이후 요석과의 사랑을 확인한 후 거사로서 설법하면서 대민(對民) 봉사 활동을 펼치는 데 머무르게 될 따름이다. 출가 계기와 관련을 맺는 반전사상은 제거되고 만 형국이라는 것이다. 서사 차원에서 보자면, 애초부터 원효가 운명과도 같은 사랑에 속수무책 휘둘렸기 때문에 『발원』의 결말은 이러한 귀결을 예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작가 김선우가 『삼국유사』의 짙막한 몇 줄에서 이러한 경로의 서사를 만들어낸 것은 근대의 모순 너머로 나아갈 만한 원효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았기 때문일 터이다.

5. 신중석의 『원효』 : 삼한일통(三韓一統) 전쟁을 지지하는 민족주의자

신중석의 원효 역시 이광수·남정희·김선우의 원효처럼 화랑 출신으로 설정되었는데, 화랑으로서 원효의 활약은 다른 어느 작가의 경우보다 혁혁했던 것으로 부각되어 있다. “조실부모한 원효는 12살 때 (…중략…) 화랑 문묘(文謨) 문하에서 신국의 현묘지도를 닦았다. 내을신궁 화랑수련 권도대회에서 장원을 하자, 선택여왕이 직접 환두대도를 하사했다. (…중략…) 원효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여러 공을 세워 대사(大舍)위를 거쳐 황금서당(黃絳誓幢)에 이르렀다.”³²⁾ 출가 시기는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다만 “늘 곁에서 자신을 지켜봐주던 할아버지 잉피 공까지 돌아가시

32) 신중석, 『원효』, 도서출판 정어, 2016, 26면. 이하 3-5절에서 인용 뒤 괄호 안의 숫자는 같은 책의 인용 페이지를 가리킨다.

자 세상 허무함을 크게 깨닫고,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한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 계도 받지 않고 스스로 머리를” 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27) 이 대목에서 원효가 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작품들이 요석 공주와 부부의 연을 맺기 이전 원효를 그려내고 있는 데 반해, 신중석의 『원효』가 이를 과감하게 생략해 버릴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는 파계(破戒)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인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효를 자유인으로 설정한 것이 긍정적인가는 의문이다. 작품의 통일성을 포기하는 알리바이로 작동하는 바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름의 필연적인 흐름에 의해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원효가 마음먹는 데 따라 펼쳐지는 몇 개 삽화들의 연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① 전생의 인연을 알고 있는 원효이기에 요석 공주와 합방하기 위하여 왕궁 앞으로 나가서 외친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랴? 하늘 받칠 기둥감을 내 찍으려다.”(49) ②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란 원을 세우고 머리를 깎았는데” 그동안 힘없고 약한 천민들을 구제하는 데 나서지 못했다는 자책이 일어(38~41) 원효는 요석궁을 떠나 거지들이 모여 사는 부곡마을로 향한다.(55) ③ 부곡마을이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한 원효는 백제 땅 석굴로 떠난다.(108) ④ 의상이 찾아와 당 유학을 권유하자 함께 길을 나선다. 그런데 이는 유학이라 하기 어렵다. “좋아, 해동원효 당나라에 가서 삼장법사(三藏法師)와 법거량(法舉場)을 한 번 해보자.”(123) ⑤ 당향으로 향하던 원효는 토굴에서 자다가 바가지의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 그가 마신 것은 해골바가지의 물이었다. 이때 만법유식(萬法唯識)이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깨닫는다. “당나라에 가서 삼장법사와 한 판 법거량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이었어. 이기고 지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는데.”(137) ⑥ 관악산에 머무르던 원효는 왜왕이 침략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래로 내려가 금샘

을 거점으로 삼아 성을 쌓는다.(213) 이렇게 『원효』에 나타나는 원효의 동선을 굵직하게 정리해 본다면 ④에서 ⑤로 이어질 때에만 개연성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의 연결에서는 어떠한 인과 관계도 없음이 드러난다.

구성의 결함과는 상관없이 『원효』의 주제의식은 분명하다. 신종석에 따르면, 신라·백제·고구려 삼국은 고조선을 모태로 하는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니 이들은 마땅히 단결해야 한다. “삼국이 힘을 합쳐 옛 조선 모양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단군 임금께서는 홍익인간이란 이념으로 백성을 돌보았습니다.”(110) 원효의 사상은 단군이 제시하였던 홍익인간의 정신을 잇고 있다. “원래 우리 삼한은 단군께서 홍익인간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홍익인간이란 바로 빈도가 주장하는 일심이고 화쟁이었습니다.”(156)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는 신하들 간에 서로 반목하여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157) 그러한 까닭에 자중지란 상태의 백제, 고구려를 당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전쟁이 요청된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하여 신종석의 원효는 전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제와 벌였던 대야성 탈환전에 나타나 신라군의 사기 충전 계책을 김유신에게 알려주는가 하면,(111~2) 문무왕·김유신과 더불어 고구려 출병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155) 당의 이적·설인귀와 마주 앉아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173~7) 뿐만 아니라 왜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정산성을 쌓기도 하였다. 따라서 삼한일통(三韓一統)에 입각하여 통일전쟁에 적극 나서는 신종석의 원효는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뚜렷하다고 할 것이다.

작가가 민족주의자 원효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는 여타 문제들이 이에 반비례하여 어떻게 사장되고 마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육두품 출신이지만 원효에게 골품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문무왕이든 김유신이든 만날 수 있으며, “문무왕에게 꾸짖듯 일장연설을” 할 수 있는 원효이기 때문이다.(148) 친족 관계를 따진다면 원효가

육두품 출신이라는 사실은 의아해지기도 한다. 작가는 의상을 진골 출신이라 밝히면서 “의상과는 외종사촌 간으로 원효가 여덟 살 많은 형님”이라 하였으며,(43) 원효가 “처음 스스로 머리를 깎았을 때 육촌 형 자장(慈藏)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45) 주지하다시피 자장은 진골 출신으로 귀족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신종석의 이러한 관계 설정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둘째, 귀족불교와 평민불교의 경계가 모호하다. 원효와 자장의 관계가 그러하며, 평민불교의 상징적 존재인 낭지가 귀족불교의 중심지인 황룡사에 좌정하고 있는 상황도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48) 민족주의자 원효의 자유롭게 활동을 부각시키기는 데 걸림이 될 만한 갈등 요소들을 작가가 제거해 버린 것이다.

『원효』가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크게 변별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전생 문제를 적극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생에 서로 사랑했던 원효와 요석 공주는 각각 진나(陳那)라는 비구, 천축국의 아유타 공주였다. 진나/원효가 육신을 입어 사바세계에 내려온 까닭은 아유타/요석 공주를 극락정도로 이끌기 위해서이다.(51~3) 그래서 원효는 그 업을 풀기 위해 ‘자루 없는 도끼’를 외치고 나섰다. 사복(蛇福)의 전생 이야기도 『삼국유사』의 설화적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죽은 사복의 어머니는 전생에 사복이 키우던 염소였다. 자신의 젖을 사복에게 주고 무거운 짐을 날라 주었던 공덕으로 현생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원효와는 무슨 관계인가.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 집필에 필요한 수만 장의 패엽경을 산꼭대기 벼랑 끝까지 날라다 준 인연이 아닌가.”(96) 『금강삼매경』을 완성한 전생의 진나/원효는 이를 검해(鈐海)/용왕에게 맡겼다가 현생에서 돌려받아 이에 대하여 풀이하고 강설하였다.(260~2) 이처럼 『원효』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생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업에 의하여 주체의 전생-현생-후생이 연결된다는 사유는 시공간을 아우르는 통체(統體, whole)를 전제하고 난 뒤, 각각의 존재를 연기자(緣起子,

destinator)로 파악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불교 신앙으로 널리 알려진 ‘통제-연기자’ 세계관, 다시 말해 윤회(輪廻) 개념은 기실 인도인 특유의 관념이다. “윤회설이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리그베다이며, 우파니샤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윤회설에서 가장 중요한 윤회의 주체를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였는데, 이 아트만은 영혼과 같은 관념이다. 이러한 베다의 윤회설을 붓다가 수용하였다는 견해와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은 무아설(無我說)이므로 윤회의 주체는 당연히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³³⁾ 신종석은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셈인데, 원효가 과연 그 편에 섰던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가령 『열반경종요』에서 상(常)과 무상(無常)을 회통시키고 있는 ‘화쟁문(和諍門)’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방식의 인식 체계는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종석의 원효는 사상 측면에서보다는 (민간)신앙의 입장에서 형상화된 양상도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IV. 원효 형상화에 요구되는 몇 가지 기본과제

신라가 삼한통일을 이룩했던 시기를 살아간 원효(A)는 하나이나, 이를 대상으로 삼아 이광수라든가 남정희·한승원·김선우·신종석이 그리고 있는 원효(a)는 제각각 다른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광수의 원효가 일제 성전에 멸사봉공의 자세로 임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면, 남정희의 원효는 만나는 모든 여성들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리는 매력남이며, 한승원의 원효는 용맹정진 수행하는 평민불교에 뿌리 내린 반전주의자이고, 김선우의 원효는 반전주의자이되 요석 안에서 요석을 매개로 불교의 깊이를 체

33) 박철환, 『불교 길라잡이』, 시공사, 1995, 273면.

득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신중석의 원효는 통일전쟁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공헌하는 민족주의자이다. 이러한 양상이 벌어지는 까닭은 우선 창작을 둘러싼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터이다. 이광수가 『원효대사』를 써 내려갈 때에는 파시즘에 근거한 군국주의가 극점에 이르러 있었고, 남정희가 『소설 원효』를 창작할 때에는 소비자본주의 경향이 팽배하는 상황이었으며, 한승원·김선우가 각각 『소설 원효』와 『발원』에서 통일 명분의 전쟁을 반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2000년 남과 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창작 배경 위에서 김선우가 페미니즘의 색채를 덧입히고 있기에 두 사람은 변별되는 원효의 상을 지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중석은 통일전쟁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북한 민중들의 비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같은 민족으로서의 노력이라는 데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듯하다.

원효는 과연 어떠한 시대 환경의 변화까지도 결부시켜 담아낼 수 있는 무색무취의 존재였을까. 이러한 현상에는 작가의 세계관 및 역량도 물론 작용하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효에 대한 자료의 절대 부족에 있을 터이다. 즉 원효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들이 듬성듬성 제시된 양상인 까닭에 해석의 행간이 넓을 수밖에 없으며, 작가들은 저마다 넓은 행간 속에서 자신의 원효를 짓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상력의 의미를 묻게 된다. 문학개론서에 나와 있듯이 “상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신비한 창조력이 아니다. 상상의 힘은 체험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상상이다.”³⁴⁾ 그렇다면 역사소설인 원효 형상화의 경우에는 체험을 대체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니, 이를 상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터이다.

34)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14면.

이를 위해서는 먼저 원효의 저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요청된다. 예컨대, 고영섭의 지적처럼, 『발심수행장』을 써 내려가던 시기의 원효라면 요석 공주와의 연분은 상상할 수 없다. 또한 “높은 산 높은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곳이고 푸른 소나무 골짜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³⁵⁾이라 하였으니 이 시기 원효는 백성들 사이에서 무애행을 펼치기 이전인 듯하다. 그리고 『대승기신론』에 드러나는 불변하는 생멸심의 측면이라든가 바다의 비유 등을 보건대,³⁶⁾ 원효는 통체(統體, whole)와 부분자(部分子, positioner)의 관계로 세계를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효의 사상 위에서 원효를 둘러싼 설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내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원효가 널빤지를 던져 당의 구도자 천여 명을 구했다는 ‘해동 원효 척판구중(海東元曉擲板救衆)’ 설화를 반전 축구로 이끌어낸 한승원의 작업은 이의 한 가지 예가 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나마 원효 이해의 거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장편소설 형식의 원효 형상화는 작가의 재기를 드러내는 계기 정도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원효를 매개로 현실을 끌어안고 현재 너머로 초월(transcendence)하려는 시도 또한 무위로 떨어질 공산이 커지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는 사실 및 설화 해석을 통한 원효의 복원 측면에 관계할 터이다.

또한 원효 사상의 핵심인 화쟁(和諍)을 원효(a)에게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려 숙종 6년(1101) 원효에게 내려진 시호는 ‘대성화쟁국사(大聖和諍國師)’였다. 어째서 원효는 화쟁을 주창하게 되었는가. “부처가 살아 있을 때에는 불설만이 진리임을 확고히 믿었으므로 교단 내에서는 다른 이설이 없었다. 그러나 부처가 열반에 들고 난 뒤부터는 많은 이설이 횡

35) 元曉, 『發心修行章』, 『韓國佛敎全書』 제1책, 841면.

36) “바닷물의 움직임을 파도라고 말하지만 파도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도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고, 바닷물은 자체가 있으므로 바닷물의 움직임이 있는 것과 같이, 마음도 사상도 그러하다.”(원효,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171면.)

행하여 각기 자신만이 옳고 남은 그릇되다고 주장하게 된다. (…중략…) 따라서 원효는 중국으로부터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여러 불교이론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³⁷⁾ 원효의 화쟁사상은 현대사회의 통합원리로 작동할 근거로서 커다란 시사점을 가진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주장은 다문화사회 및 민주주의 체제에 요구되는 화이부동(和而不同) 혹은 톨레랑스(tolerance)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經 下文에 이르기를 ‘저 눈먼 사람들이 각기 코끼리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코끼리의 實體는 언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코끼리를 설명한 것이 아님은 아니다.’ 하였다. 佛性을 말하는 분도 이와 같아서 여섯 분이 주장한 法을 卽하여 있는 것도 아니며 여섯 분이 주장을 벗어나서 있는 것도 아니다.”³⁸⁾ 여러 일리(一理)들의 대화와 경합을 통하여 진리(眞理) 추구의 과정을 그려내는 작업은 원효 사상의 이해 측면에 관계할 터이다.

이광수, 남정희, 한승원, 김선우, 신종석이 형상화한 다섯 가지 모습의 원효 가운데 저술 검토, 설화 분석 등의 노력을 집요하게 병행한 경우는 한승원이 유일하다. 그리고 화쟁사상의 면모를 살려낸 노력은 이들에게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원효의 면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그다지 풍요롭다고 평가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후 원효의 형상화 작업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7)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198면.

38) 元曉大師, 李英茂 譯, 『校訂國譯 涅槃經宗要』, 大星文化社, 1984, 171면.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선우, 『발원 : 요석 그리고 원효』, 민음사, 2015.
 남정희, 『소설 원효』, 도서출판 장원, 1992.
 신종석, 『원효』, 청어, 2016.
 이광수, 『원효 대사』, 화남, 2006.
 한승원, 『소설 원효』, 비채, 2006.

- 元 曉 著, 「發心修行章」, 『韓國佛教全書』 제1책.
 _____, 李英茂 譯, 『校訂國譯 涅槃經宗要』, 大星文化社, 1984.
 원 효, 은정희 옮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2004.
 일 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07.
 贊 寧, 「唐新羅國義湘傳」, 『宋高僧傳』 제4권(『大正新修大藏經』 제50책)

2. 연구논저

- 고영섭,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 원효, 한국 사상의 새벽』, 한길사, 2009.
 _____,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운주사, 2016.
 광철환, 『불교 길라잡이』, 시공사, 1995.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김준태, 「통일과정시대의 인물 : 원효의 현재성-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 재출간에 즈음하여 붙이는 글」, 『원효대사』 1, 화남, 2006.
 남동신, 『영원한 새벽 원효』, 도서출판 새누리, 1999.
 박균섭,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통해 본 전시동원체제와 식민교육의 성격」, 『教育問題研究』 제46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은정희, 「해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2004.
 李光洙, 「鬻莊記」, 『文章』, 1939.9.
 정효구, 「한국문학에 그려진 원효의 삶과 사상-소설문학을 중심으로」, 『분황 원효가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제6차 학술대회자료집,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17.3.18.
 최원섭, 「불교 주제 구현을 위한 원효 캐릭터 비판-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2014.7.
 황영선, 『원효의 생애와 사상』, 국학자료원, 1996.

西田幾多郎, 『國家理由の問題』, 『西田幾多郎全集』第十卷, 東京: 岩波書店

이 논문은 2017년 9월 12일에 접수되어,
2017년 9월 26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2017년 10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7년 10월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Analyzing Wonhyo Presented in Full-length Novels and Further Assignment

—Focusing on Literary Works that Selected Wonhyo as a Major Figure
by Lee Gwang-su, Nam Jeong-hee, Kim Seon-woo, Shin Jong-seok—

Hong, Gi-Don

There are only a couple of fragmentary records on the life of Wonhyo. Moreover, these records have been exaggerated, distorted, and handed down as tales. This paper examines relevant documents and reorganizes his life in the big picture by comparing his life with his Buddhist philosophy.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 of published full-length novels that selected Wonhyo as a major figur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Buddhist priests were described differently depending on novelists' ideas due to insufficient precise documents. Lee Gwang-su portrayed the priest as taking a sacrificing attitude during the holy war; Nam Jeong-hee showed him as a character who dwells in a female fantasy. Han Seung-won highlighted the priest as an anti-war activist deeply entrenched in ordinary Buddhism; meanwhile, Wonhyo was represented as a nationalist who participated in the unification war of three nations as written by Shin Jong-seok. The Buddhist priest as described by Kim Seon-woo symbolizes a person who practices and follows Buddhist doctrine and is in love with Yoseok. Activ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documents and tales is required to overcome the crisis wherein Wonhyo is distorted by novelists' imagination. Thus, the transition from a strict religious trainee into a freeman should be presented, and his philosophies such as Neither One Nor Two(不一不二) and Inter-religious

Dialogue(和諍) should be explicitly associated with studies about this priest.

Key Words : Neither One Nor Two(不一不二), Sacrifice(減私奉公), Female fantasy, Common Buddhism, Anti-war activist, Person, Nationalist, Inter-religious Dialogue(和諍)